

42 일차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켜야 한다.

-프레드리히 니체

잘 달려오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떠한 걱정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을 한다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당신이 '춤추는 별'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요.

당신은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양to the치기 42일차

[1~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작년부터 우리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이용이 불편하다는 건의 사항이 많아 지역 주민과 학생 대표, 그리고 도서관 책임자를 모시고 이용 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토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 대표부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대표: 이용자에 비해 도서관이 너무 비좁고 직원들도 적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도서관 책임자: 기존 인력으로 크게 늘어난 이용자를 상대하다 보니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도서관 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대표: 얼마 전에 아무리 기다려도 도서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 결국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서관을 개방하기 전에는 항상 자리에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리를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회자: 결국 공간의 협소함과 인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네요. 이 모두가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생긴 문제점이군요. 그런데 인력 확충 문제는 현재 관련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다음에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토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 학생 대표부터 해결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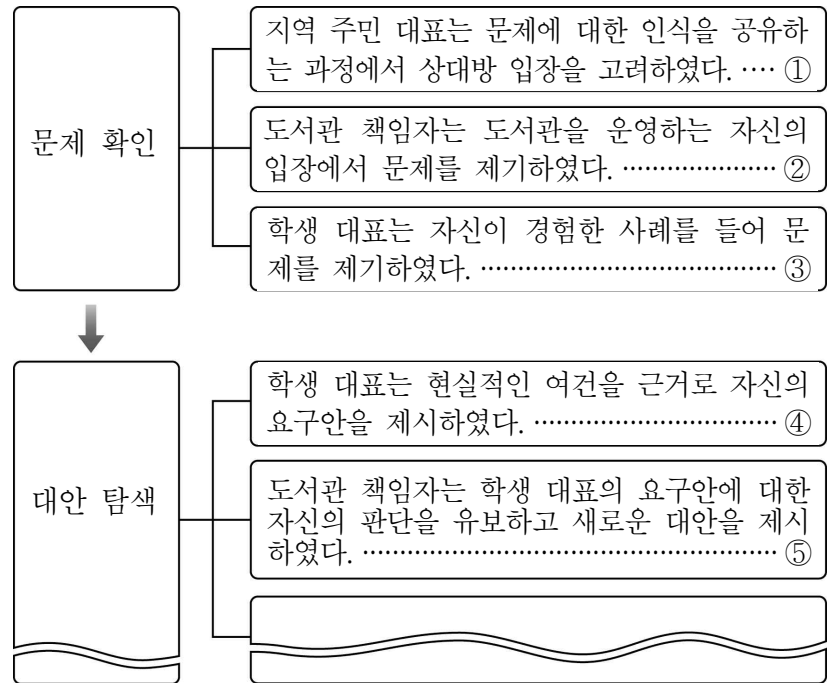
학생 대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학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개방 장소도 개가식 열람실로만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분산되어 도서관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 책임자: 학생 대표의 제안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을 개방하기로 했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판단이 쉽지 않네요.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책의 관외 대출을 허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관외 대출이 안 되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더욱 혼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학생 대표는 개방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을 제안해 주셨고, 도서관 측에서는 지역 주민에게도 책의 관외 대출을 허용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네요. 지역 주민 대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지역 주민 대표: 죄송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학생 여러분들의 양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이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져 대학 입장에서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조사를 보니 OECD 국가에서는 대학 도서관의 개방이 의무화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장서를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1. 위 토의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위 토의를 진행한 사회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를 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였다.
- ②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정해 주었다.
- ③ 토의 참여자 발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었다.
- ④ 토의 과제를 선별하여 이후의 논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⑤ 토의 참여자가 제시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3. 위 토의를 참관한 청중이 [A]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미 결정된 대안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있어 논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② OECD 국가의 도서관 개방과 관련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는군.
- ③ 학생들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평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군.
- ④ 세계적인 경쟁력을 위해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자는 주장은 논점에서 벗어나 있어서 적절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군.
- ⑤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지원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해 타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렵군.

양to the치기 42일차

[4~5] 다음은 학교 신문에 동아리 탐방 기사를 실기 위한 인터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정우: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리 탐방 기사를 담당한 임정우입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현지: 안녕하세요? 선배님, 편하게 말씀 낮추세요.	
정우: 제가 선배라도 공식적인 인터뷰인데 그럴 수는 없죠. 지금 시간을 보니 점심 식사를 막 마치셨을 때인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B]
현지: 네. 잘 먹었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우: 여기에 오니까 정말 소극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무대도 있고 조명도 있고..... 지금도 저기에서 학생들이 연극 연습을 하고 있네요. 저 학생이 주인공인가 보죠?	[C]
현지: 네. 저 학생이 주인공이에요. 정기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정우: 그렇군요. 이번 공연도 기대가 되네요. 어! 그런데 벽에 뮤지컬 배우인 최연기 씨 사진이 있네요.	
현지: 우리 연극반 5기 선배님이세요.	
정우: 아, 그랬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우리 학교 선배님이라는 것은 몰랐네요. 최연기 선배님을 만날 기회가 자주 있나요?	[D]
현지: 네. 최연기 선배님은 바쁜신 중에도 자주 학교에 오셔서 후배들 연기도 봐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신답니다.	
정우: 부럽네요. 그런데 연극반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나배우 선생님이시죠?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현지: 네. 나배우 선생님은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연출을 많이 해 보셔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신답니다. 하지만 연습할 때는 굉장히 엄하셔서 개인적인 사정을 잘 안 봐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원을 빠져야 하는 아이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E]
정우: 아, 그렇군요.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럼 현지 양이 연극반 지도 교사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지: 저는 연극반 지도 교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 꿈은 뮤지컬 주연 배우가 되는 거예요.	[가]
정우: 제 말은 그게 아닌데.....	

4.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 높임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B]에서 시간적 상황이 인사말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C]에서 담화 참여자들이 시·공간적 상황을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구두 언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④ [D]에서 상호 교섭을 통해 질문과 답변 내용이 즉흥적으로 생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에서 담화 참여자 사이의 지위 차이가 능동적인 상호 작용에 영향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

5. [가]의 의사소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현지'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답변해야 해.
- ②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 공감적 듣기를 해야 돼.
- ③ 상대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말하기 전략을 사용해야 해.
- ④ 우리말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이를 말하기에 잘 활용해야 돼.
- ⑤ 상대방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오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돼.

6. <보기>는 고등학생이 '중학교 학급 동창회 안내문'을 쓰기 위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고려할 때, 아래 제시된 안내문의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1: 다음 주면 우리가 중학교 졸업한 지 꼭 3주년이야. 그래서 졸업할 때 약속한 대로 학급 동창회를 하려고 안내문을 만들어 봤어. 한번 봐 줄래?

학생 2: 그래. 모임 일시, 장소, 대상 같은 걸 앞에 배치해서 친구들이 잘 알아볼 것 같아. 그런데 이 가운데 비어 있는 부분은 뭐야?

학생 1: 여기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좀 도와줄래?

학생 2: 내 생각에는 먼저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동창회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어.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도 사용해 보는 게 어떨까?

학생 1: 좋은데. 어렵겠지만 한번 해 볼게.

3학년 1반 학급 동창회를 개최합니다.

- 모임 일시: 2013년 ○월 ○일 10시
- 모임 장소: △△중학교 3학년 1반 교실
- 초대 대상: 2010년 △△중학교 3학년 1반 친구들

자랑스럽고 그리운 친구들아!
선생님을 모시고 학급 동창회를 개최한다.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느라 다들 힘들지? 이럴수록 3년 전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리워진다.

친구야, 우리는 영원한 △△중학교 3학년 1반이다.

3학년 1반 학급 회장 박□□

- ① 식당에 먼저 가려고 내달리던 멧쟁이, 각쟁이, 개구쟁이들. 옥구슬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들아,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 ②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 교실, 우리 반 친구들. 우리를 철부지라 하시던 선생님 목소리가 벌써부터 들려오지 않는가.
- ③ 3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틈엔가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다. 이번이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잊지 말자.

양to the치기 42일차

- ④ 교실에서 우리는 언제나 지지 않는 봄꽃처럼 활짝 피었고, 우리가 함께 있던 그 꽃밭에는 한 자락의 바람도 들어올 틈이 없었다.
- ⑤ 선생님께서 모래 가져 오라고 하신 준비물을 모래로 잘못 알고 가져와, 함께 벌을 서면서도 즐거워했던 친구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보석이었다.

[7~8] <보기 1>의 '건의문 쓰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보기 2>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1 >

[건의문 쓰기 과제]

초등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당국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보기 2 >

(가) 인터뷰 자료

차량의 속도와 교통사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규정 속도는 30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범칙금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交通安全 시설인 노면 표시나 안전 표지판은 차량 감속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交通安全 시설물 설치가 필요합니다.

- 교통안전연구소 ○○○ 연구원

(나) 통계 자료

(1)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건수)

연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어린이 보호구역 100개소당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07	15,500	4.1
2008	15,000	5.7
2009	15,000	5.6
2010	14,000	5.6
2011	13,500	5.0

(2) 어린이 보호구역 내交通安全 시설물의 설치 효과*

交通安全 시설물	개수	평균 운행 속도
과속 방지턱	없음	47.45km/h
	1개	37.18km/h
	2개	30.62km/h
고원식 횡단보도**	없음	49.34km/h
	1개	33.67km/h
	2개	26.94km/h

- ○○학회 논문

* 해당交通安全 시설물이 0~2개 설치되어 있는 여러 지점을 조사한 결과임.

** 고원식 횡단보도: 도로보다 높이를 높인 횡단보도.

7. <보기 2>의 자료들을 활용하기 위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와 (나)의 (1)을 묶어交通安全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고 있음을 밝힌다.
- ② (가)를 고려하여 (나)의 (2)에 제시된交通安全 시설물의 개수와 평균 운행 속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③ (나)의 (1)과 달리 (나)의 (2)를 해석할 때는 상반된 변화 추이에 주목한다.
- ④ (나)의 (2)를 통해 (나)의 (1)에서 2008년과 2010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한 원인을 해석한다.
- ⑤ (나)의 (2)에서 과속 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가)에서 찾아 논거로 활용한다.

8. <보기 1>과 <보기 2>를 고려하여 건의문을 쓰기 위한 전략과 내용 구성 방향을 구상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쓰기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문의 성격에 맞게 중심 내용을 '문제 제시 → 원인 분석 → 해결 방안 건의'의 순서로 구성한다. ○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부각한다. ① ○ 건의 대상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한다.
내용 구성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정중한 인사말과 함께 건의자를 밝히고, 건의 목적을 제시한다. ○ 중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제기한다. ②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 위반에 대한 법적 규제의 미비가 문제의 원인임을 밝힌다. ③ 3. 과속 방지턱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④ ○ 끝: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交通安全 시설물 확충을 촉구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⑤

양to the치기 42일차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과제**: ‘가족 간의 대화’를 주제로 설득적인 글 쓰기

□ **글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나의 글쓰기에 대하여

내가 수행할 과제는 ‘가족 간의 대화’를 주제로 설득적인 글을 쓰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의 대화가 필요하며 가족 간의 대화에 적극 나서자는 내용으로 글을 썼다. 하지만,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만으로는 독자들을 충분히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족이 모여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을 더하였다. 가족이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평소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용을 보강하니 한 편의 글이 완성되었다.

□ **학생의 글**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갖자.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사라지고 있다. 부모는 일로, 자녀는 공부로 바빠서 서로 얼굴을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대화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가정은 삭막한 곳으로 변하게 된다. 가정에서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가족들은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 ㉢대화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윤희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 간의 대화가 아무런 노력 없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가족끼리 함께 여행을 간다거나 공통의 취미를 만들어 활동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9. ‘글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예상 독자를 분석하여 독자의 흥미에 맞게 내용을 구성한다.
- ② 주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생성한다.
- ③ 중심 내용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로 세부 내용을 전개한다.
- ④ 주어진 자료에 담긴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이를 충실하게 드러낸다.
- ⑤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글의 주제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맞춤법에 맞게 ‘오랫동안’으로 고쳐 쓴다.
- ② ㉡은 문맥을 고려하여 ‘위로받을 수 있다’로 바꾼다.
- ③ ㉢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단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헛되이’로 바꾼다.
- ⑤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러면’으로 바꾼다.

11. 다음은 ‘안다’의 표준 발음에 관해 어느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의문

“아기를 안다[안:따].”와 “그 사람을 잘 안다[안:다].”에서 ‘안다’의 표준 발음이 다른 이유는 뭘까?

탐구

(1) 음운 환경이 유사한 단어를 된소리 발음 여부에 따라 분류한 후 그 특성을 분석한다.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신발을) 신다[신:따]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 (하늘을) 난다[난:다]
어간 어미 신- -다	어간 어미 날- -다
-고 -어서	-고 -아서

(2) 표준발음법 규정을 확인하여 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결론

“그 사람을 잘 안다.”의 ‘안다’가 표준발음법의 된소리되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은 ㉠

- ① ‘안다’에 대한 개인의 발음 습관 차이 때문이다.
- ② ‘안’이 길게 발음되어 ‘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 ③ ‘안다’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표현 의도 때문이다.
- ④ ‘안다’에서 ‘다’의 ‘ㄷ’이 모음 사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 ⑤ ‘안다’에서 ‘안’의 ‘ㄴ’이 어간 받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2. <보기> (가)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나)의 밑줄 친 부분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한글 맞춤법 규정

-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나) ㉠ 내게는 키가 큰형이 있다.
㉡ 나는 연필 한자루를 샀을뿐이다.
㉢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너뿐이다.

- ① ㉠의 ‘큰’과 ‘형’은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겠군.
- ② ㉡의 ‘자루’는 제43항에 따라 ‘한’과 띄어 써야겠군.
- ③ ㉢의 ‘뿐’은 제42항에 따라 ㉢의 ‘뿐’과 달리 띄어 써야겠군.
- ④ ㉢의 ‘이해해’와 ‘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47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겠군.
- ⑤ ㉡과 ㉢의 ‘이다’는 제2항에 따라 ‘뿐’과 띄어 써야겠군.

양to the치기 42일차


13. 다음은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위한 학습 자료이다.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제는 일을 끝마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이다. ㉠
-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했다. ㉡
- 나는 학급 회장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
- 나는 성실한 그의 동생을 어제 만났다. ㉣
- 이번 주 금요일에 학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 ① ㉠: '문제'가 주어와 서술어에 중복되어 나타나므로, '걸린다는 점이 문제이다'를 '걸린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 ② ㉡: '소개시켜'는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이 사용된 것이므로 '소개해'로 고친다.
- ③ ㉢: '으로써'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므로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로 고친다.
- ④ ㉣: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수식 대상이 '동생'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수식 대상이 '그'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고친다.
- ⑤ ㉤: '회의를 갖다'는 번역체 표현이므로 '가질'을 '할'로 고친다.

14. <보기>의 담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다음 뉴스입니다. 사랑의 온도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사랑의 온도계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모금의 목표액을 온도계의 온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온도계의 온도가 아직 50°C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① 공적인 말하기와 사적인 말하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 ② 정보 제공의 기능을 가진 담화가 호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 ③ 상세한 내용 제시 후 일반적 내용을 제시하는 담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④ 비문법적인 표현, 단어의 반복이 나타나는 구어 담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⑤ 1:1 소통을 통해 실시간 의견 교환이 가능한 매체 담화의 특성을 보여 준다.

15.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보다’, ‘듣다’, ‘느끼다’, ‘맛보다’, ‘말다’와 같은 단어들은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인식이나 판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볼까요?

- ① **보다** { 다회를 보며 인상을 썼다.
이 도시를 유통의 중심지로 본다.
- ② **듣다** {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종종 농담을 진담으로 들는다.
- ③ **느끼다** { 포근한 이불의 감촉을 느꼈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비명을 질렀다.
- ④ **맛보다** { 찌개의 간이 어떤지 맛보았다.
인간은 때때로 상실감을 맛본다.
- ⑤ **말다** { 라일락 향기를 말으니 봄이 온 것을 알겠다.
형사는 그가 범인이라는 냄새를 말았다.

16. 다음은 ‘훈민정음’에 대한 발표를 위해 학생들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성자]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어금닛소리	ㄱ	ㅋ	ㆁ
혓소리	ㄴ	ㄷ, ㅌ	ㄹ
입술소리	ㅁ	ㅂ, ㅃ	
잇소리	ㅅ	ㅆ, ㅈ	ㅊ
목구멍소리	ㅇ	ㆁ, ㆅ	

[중성자]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
·, ㅡ,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종성자]

종성에는 초성 글자를 다시 쓴다.

- ①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기본자와 가획자는 형태상의 유사성이 있음을 설명한다.
- ②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③ 이체자는 가획자에 한 번 더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④ 모음의 초출자와 재출자는 기본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설명한다.
- ⑤ 받침에 쓰는 자음을 추가로 만들지 않으므로써 문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음을 설명한다.

해석

①⑤①⑤①
①②③②④
⑤⑤④②③

1. [출제의도] 토의 절차에 따른 참여자의 담화 내용을 파악한다.

문제 확인 과정에서 지역 주민 대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의 불편함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여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이해한다.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의 의견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평가 역시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도서관과 관련된 건의사항이 많아 토의를 하게 되었다고 토의 배경을 제시하였다. ② 사회자가 첫 번째 발언자를 정해 주고 순서대로 발언하도록 하였다. ③ 토의 참여자의 의견을 정리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④ 문제 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별하여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정해 주었다.

3. [출제의도] 토의 참여자의 의견을 평가한다.

토의 과정에서 아직 결정된 대안이 없으므로, 이것을 다시 언급했다는 것은 적절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②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신뢰성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③ 한쪽의 일방적인 회생만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정성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④ '도서관 장서 확충'은 협소한 도서관 공간의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는 논점에서 벗어나 있어 적절한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 ⑤ 도서관 개방이 대학 지원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타당성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담화 내용을 통해 화법의 성격을 이해한다.

담화 참여자인 정우와 현지 사이의 지위 차이는 [E]에서 부각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상호 작용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정우는 현지보다 선배이지만, 공식 담화라는 점을 고려하여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점심 식사를 막 마친 시간이라는 점이 정우의 인사말 내용 생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③ 정우와 현지는 시·공간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저기', '저' 등의 표현만으로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④ 정우와 현지는 상호 교섭하며 '최연기 씨'와 관련된 발화의 내용을 즉흥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5. [출제의도] 원활한 의사소통의 전략을 이해한다.

[가]에서 정우는 언급반에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알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동아리 운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지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지는 그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엉뚱한 대답을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안내문을 쓴다.

두 학생은 '중학교 학급 동창회 안내문'을 쓰기 위해 대화를 나누며 안내문에 들어갈 내용들을 말한다. 그 중 일부의 조건으로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동창회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과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이 제시된다. 정답지에는 식당에 먼저 가려고 내달리던 추억과 하나도 빠지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옥구슬 같은 목소리'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7. [출제의도] 건의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적절히 분석한다.

<보기 1>에서는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 쓰기 과제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보기 2>에 제시된 자료들을 이러한 건의문 쓰기에 맞게 적절히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지에서는, (가)에서 언급된 기존의 교통안전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나)의 (2)에 제시된 두 가지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효과를 검토해 보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건의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적절하게 분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건의문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보기 1>과 <보기 2>를 고려하여 건의문을 쓰기 위한 전략과 내용 구성 방향을 구성하였으므로, 이 두 가지가 건의문의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서로 긴밀히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내용 구성 방향의 두 번째에서는 앞에서 문제 상황이 제기되었으므로, 그러한 문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이 적절히 분석되어 있어야 한다. <보기 2>에 제시된 (가) 자료를 보면, 현재 ③과 같이 규정 속도 위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다기보다는 기존의 교통안전 시설의 효과가 떨어지는 데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9. [출제의도] 글쓰기의 전략을 파악한다.

'글쓰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에서 글쓰는 기준에 쓴 내용으로 독자들을 설득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내용을 새로 추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생성한다는 내용의 ②를 글쓰기가 활용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10. [출제의도] 최고의 표현을 적절하게 고친다.

'우연히'는 '아무런 노력 없이'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이에 맞게 고쳐야 하며, 여기에는 '저절로'가 적절하다. '헛되이'는 '아무런 보람이나 실속이 없이'의 뜻이므로, 이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의 원리와 규정을 이해한다.

탐구 단계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ㄴ'이 'ㄷ' 앞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기 위해서는 'ㄴ'이 어간 받침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다'에서 'ㄴ'은 어간 '신-'의 받침에 해당하므로 그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된다. 그러나 '난다'에서 'ㄴ'은 어간 '날-'의 받침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므로, 그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다.

12.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한다.

㉠과 ㉡에 사용된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뿐이다'와 같이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13. [출제의도] 잘못된 어법이나 번역체 등에 의한 문장의 오용 사례를 교정한다.

㉢은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그'인지, '그의 동생'인

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중의성을 갖게 된 문장이다. '성실한 그의, 동생'에서 '성실한'의 수식 대상을 '동생'이라고 볼 수 없고, '성실한, 그의 동생'에서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그'라고 볼 수 없다.

14. [출제의도] 담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담화의 기능으로 정보 제공, 호소, 사교, 선언 등이 있다. 그러나 하나의 담화가 갖는 기능은 하나 이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도 기사문, 뉴스의 일반적인 기능은 정보 제공이지만 경우에 따라 호소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보기>는 사랑의 온도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텔레비전 뉴스인데, 어려운 이웃을 도울 것을 호소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15.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 확장을 이해한다.

'보다', '듣다', '느끼다', '맛보다', '말다'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인식한 것을 표현하는 동사들이다. 이러한 기본 의미에서 확장되어 추상적인 인식이나 판단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보다'가 '관점'을, '듣다'가 '수용'이나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불의 감촉을 느끼는 것과 통증을 느끼는 것은 모두 추상화된 확장 의미가 아니라 기본 의미이다.

16. [출제의도] 한글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이체자는 가획자에 한 번 더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가 아니다. 훈민정음에서는 이체자에 대해 획을 더한 뜻이 없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어금닛소리의 기본자 'ㄱ'은 같은 조음 위치의 가획자 'ㅋ'과 형태상 유사하다. 헛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구멍소리의 기본자와 가획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훈민정음에서는 조음 위치가 같은 기본자와 가획자가 형태상 유사하게 되어 있다. ② 'ㄱ'과 'ㅋ'을 비교해 보면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④ 모음의 초출자는 기본자 '·, ㅡ, ㅣ'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 모음의 재출자는 초출자에 기본자의 '·'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 역시 기본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⑤ 훈민정음에서는 중성을 위해 별도의 문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자음의 수가 불필요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여 문자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